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대전, 충남 3차의료기관 중심으로)

Images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ived by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Focusing on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 do)

한송이, 배기숙, 김진욱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ong-Yi Han(sorang0731@naver.com), Ki-Sook Bae(nari77kr@hanmail.net),
Jin-Uk Kim(johmmer@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대전·충남 소재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122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미지는 3.27 ± 0.34 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역할 이미지가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의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가장 높았고, '잘난 체하고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다.'가 가장 낮았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 동료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관해야하며, 전문직으로서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종사자 | 이미지 |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image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ith 122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doctors and nurses) working at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 do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enhancing the status and professional image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overall image was 3.27 ± 0.34 , and by its sub area, professional image was highest and role image was lowest. By item,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 with doctors' was highest, and 'Arrogant and negligent in job performance' was lowest. In order to enhance their image,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need to assume a sincere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colleagues consistently,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and to carry out their duties and roles faithfully. What is more, the association should take proper measures and to establish the sound imag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s a professional through active campaigns and monitoring using mass media.

■ keywords :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Emergency Medical Participant | Image |

I. 서론

1990년대에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를 계기로 전문화된 응급의료체계의 범국가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 결과 1994년 응급의료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대형 재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현장 상황과 각종 대량 재해에 대비하고자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담당 할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한 “응급구조사 수습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응급구조사는 1995년에 2급 응급구조사147명 배출이 시작되어 2011년 한해에만 1,435명이 배출되는 등 2011년까지 총 18,051명의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었다 [1].

대부분 응급구조사라면 현장위주의 교육과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부족한 의료진의 진료공백을 메우고 의료진 진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2].

Kotler & Clark[3]는 이미지를 한 대상에 대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로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모습이라고 서술하였으며 Barich와 Kotler[4]는 이미지를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직업이 갖게 되는 이미지는 그 직업에 대해 갖게 되는 신념이나 인상 또는 인식이라 하였다. 따라서 직업이미지는 직업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일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응급구조사의 직업이미지도 응급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 자신의 발전과 타인이 보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직업이미지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킴은 응급의

료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윤[6]과 이[7]의 연구 정도만 있으며 이 또한 대상자가 달라 응급의료종사자가 보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바라보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의 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직업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대전·충남권 소재 3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1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가 불충분한 19부를 제외한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문헌 검토 및 예비조사를 통해 윤[6]의 응급구조사 이미지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응급구조사 관련특성 3문항과 응급구조사 이미지에 관한 28 문항으로 되어있다. 응급구조사 이미지에 관한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

표 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문항	내용	문항수
일반적특성	연령	1
	성별	1
	학력	1
	종교	1
	결혼여부	1
	면허종류	1
	직위	1
	병원 경력	1
	응급실 경력	1

응급구조사 이미지	태도	8
	자질	4
	직업의식	6
	역할	2
	업무	3
	전문성	5
전체		37

3. 자료 분석

통계패키지 SPSS(ver18.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와 F-test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4. 조사도구의 신뢰성

조사도구의 영역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실시하였다. 윤[6]이 작성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0.929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신뢰도는 태도 0.883, 자질 0.949, 직업의식 0.791, 역할 0.823, 업무 0.956, 전문성 0.963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22명이며 연령은 25세~30세미만 51명(41.5%), 30세~35세미만 29명 (23.6%), 20세~25세미만 20명(16.3%), 35세~40세미만 14명(11.4%), 40세 이상 8명(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성 91명(74.0%), 남성 31명(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61명(49.6%), 전문대학 33명(26.8%), 대학원 22명(17.9%), 기타 6명(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56명(45.5%), 기독교 35명(28.5%), 불교 22명(17.9%), 천주교 7명(5.7%), 기타 2명(1.6%)의 순이다. 결혼여부는 미혼 89명(72.4%), 기혼 32명(26.0%), 기타1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허종류는 간호사 88명(71.5%), 의사 34명(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의사)는 레지던트(응급의학과) 12명(34.3%), 레지던트(응급의학과 외) 9명(25.7%), 인턴 8명(22.9%), 전문의 6명(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간호사)는 일

반간호사 78명(87.6%), 책임간호사 8명(9.0%), 수간호사가 3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경력은 2년 미만 39명(31.7%), 2년~4년 미만 29명(23.6%), 10년 이상 24명(19.5%), 4년~6년 미만 12명(9.8%), 8년~10년 미만 10명 (8.1%), 6년~8년 미만 7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경력은 2년 미만 60명(31.1%), 2년~4년 미만 29명(15.0%), 6년 이상이 20명(10.4%), 4년~6년 12명(6.2%)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2)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세~25세미만	20	16.3
	25세~30세미만	51	41.5
	30세~35세미만	29	23.6
	35세~40세미만	14	11.4
	40세 이상	8	6.6
성별	남	31	25.2
	여	91	74.0
학력	전문대학	33	26.8
	대학교	61	49.6
	대학원	22	17.9
	기타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	6	4.9
종교	기독교	35	28.5
	천주교	7	5.7
	불교	22	17.9
	무교	56	45.5
	기타	2	1.6
결혼여부	미혼	89	72.4
	기혼	32	26.0
	기타	1	0.8
면허종류	의사	34	27.6
	간호사	88	71.5
직위 (의사)	인턴	8	22.9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12	34.3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외)	9	25.7
	전문의	6	17.1
직위 (간호사)	일반간호사	78	87.6
	책임간호사	8	9.0
	수간호사	3	3.4
병원 경력	2년 미만	39	31.7
	2년~4년 미만	29	23.6
	4년~6년 미만	12	9.8
	6년~8년 미만	7	5.7
	8년~10년 미만	10	8.1
	10년 이상	24	19.5
응급실 경 력	2년 미만	60	31.1
	2년~4년 미만	29	15.0
	4년~6년 미만	12	6.2
	6년 이상	20	10.4

2. 대상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 이미지 정도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인식 정도는 전체 18문항에 대해 3.27±0.34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태도에서 “환자 우선주의로 일처리를 한다”가 3.53±0.71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을 말해준다”가 3.57±0.69점, “짜증이 섞인 말투로 환자에게 응대한다”가 2.27±0.77점, “환자와 보호자에게 호의적이다”가 3.51±0.68점, “환자의 요구에 즉시 대응한다”가 3.42±0.64점, “환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3.35±0.71점, “환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핀다”가 3.30±0.66점, “잘난 체하고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다.*”가 2.05±0.79점으로 나타났다. 태도 평균은 3.09±0.45점으로 나타났다. 자질에서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강하다”가 3.24±0.71점, “헌신적이다”가 3.21±0.68점, “정직하다”가 3.56±0.60점, “말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 한다”가 3.61±0.67점으로 나타났다. 자질 평균은 3.40±0.57점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에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가 3.57±0.66점, “의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3.82±0.66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가 3.63±0.69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가 3.30±0.71점, “대인관계나 동료의식이 강하다”가 3.58±0.77점, “직업이 매력적이다”가 3.20±0.78점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 평균은 3.49±0.56점으로 나타났다. 역할에서는 “기계적이고 타성적이다.*”가 2.61±0.81점,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가 2.88±0.84점으로 나타났다. 역할 평균은 2.74±0.73점으로 나타났다. 업무에서는 “항상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3.38±0.95점, “타부서보다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가 3.52±0.99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가 3.43±0.90점으로 나타났다. 업무 평균은 3.43±0.87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에서는 “하는 일이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다”가 3.56±0.70점, “응급상황에 정확하게 대처한다”가 3.55±0.69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가 3.31±0.65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3.60±0.65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3.46±0.6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평균은 3.46±0.62점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 이미지 정도

항 목		Mean±SD
태도		
1	환자 우선주의로 일처리를 한다.	3.53±0.71
2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을 말해준다.	3.57±0.69
3	짜증이 섞인 말투로 환자에게 응대한다.	2.27±0.77
4	환자와 보호자에게 호의적이다.	3.51±0.68
5	환자의 요구에 즉시 대응한다.	3.42±0.64
6	환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	3.35±0.71
7	환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핀다.	3.30±0.66
8	잘난 체하고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다.*	2.05±0.79
total		3.09±0.45
자질		
1	희생과 봉사정신이 강하다.	3.24±0.71
2	헌신적이다.	3.21±0.68
3	정직하다.	3.56±0.60
4	말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3.61±0.67
total		3.40±0.57
직업의식		
1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3.57±0.66
2	의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82±0.66
3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	3.63±0.69
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3.30±0.71
5	대인관계나 동료의식이 강하다.	3.58±0.77
6	직업이 매력적이다.	3.20±0.78
total		3.49±0.56
역할		
1	기계적이고 타성적이다.*	2.61±0.81
2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2.88±0.84
total		2.74±0.73
업무		
1	항상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38±0.95
2	타부서보다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3.52±0.99
3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3.43±0.90
total		3.43±0.87
전문성		
1	하는 일이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다.	3.56±0.70
2	응급상황에 정확하게 대처한다.	3.55±0.69
3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3.31±0.65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3.60±0.65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3.46±0.60
total		3.46±0.62
전체		3.27±0.34

*표는 역문항임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자’ 3.28점, ‘여자’ 3.22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28,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무교’ 3.37점, ‘불교’ 3.24점, ‘기독교’ 3.21점, ‘천주교’ 3.17점, ‘기타’ 2.7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2.93, p=0.0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타’ 3.78점, ‘미혼’ 3.33점, ‘기혼’ 3.13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95, p=0.00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종류에서는 ‘의사’ 3.44점, ‘간호사’ 3.2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1.64,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경력에서는 ‘2년 미만’ 3.45점, ‘8년~10년 미만’ 3.40점, ‘10년 이상’ 3.22점, ‘4년~6년 미만’ 3.18점, ‘2년~4년 미만’ 3.1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50, p=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경력에서는 ‘2년 미만’ 3.36점, ‘6년 이상’ 3.31점, ‘2년~4년 미만’ 3.15점, ‘4년~6년 미만’ 3.0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6.67, p=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직위(의사), 직위(간호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이미지의 차이

구분	M	SD	t or F	P	
연령	20세~25세미만	3.25	0.26	1.56	0.188
	25세~30세미만	3.36	0.31		
	30세~35세미만	3.16	0.44		
	35세~40세미만	3.25	0.37		
	40세 이상	3.32	0.33		
성별	남자	3.28	0.35	3.28	0.001**
	여자	3.22	0.30		
학력	전문대학	3.17	0.31	2.67	0.051
	일반대학교	3.27	0.38		
	대학원	3.42	0.26		
	기타	3.41	0.39		
종교	기독교	3.21	0.38	2.93	0.024*
	천주교	3.17	0.25		
	불교	3.24	0.35		
	무교	3.37	0.32		
	기타	2.75	0.28		
결혼 여부	미혼	3.33	0.31	4.95	0.009**
	기혼	3.13	0.40		
	기타	3.78	.		
면허 종류	의사	3.44	0.41	11.64	0.001**
	간호사	3.21	0.30		
직위 (의사)	인턴	3.52	0.31	1.23	0.315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3.48	0.37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외)	3.22	0.53		
	전문의	3.57	0.29		
직위 (간호사)	일반간호사	3.21	0.30	0.29	0.744
	책임간호사	3.21	0.31		
	수간호사	3.35	0.35		

병원 경력	2년 미만	3.45	0.25	5.50	0.000**
	2년~4년 미만	3.16	0.43		
	4년~6년 미만	3.18	0.29		
	6년~8년 미만	2.92	0.21		
	8년~10년 미만	3.40	0.27		
	10년 이상	3.22	0.31		
응급실 경력	2년 미만	3.36	0.33	6.67	0.000***
	2년~4년 미만	3.15	0.37		
	4년~6년 미만	3.09	0.30		
	6년 이상	3.31	0.32		

*P<0.05 **P<0.01 ***P<0.001

IV. 고찰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총 평균 점수는 3.4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연구를 위해 간호사 154명을 대상으로 한 윤[6]의 연구에서 나타난 3.25점, 간호사의 이미지 연구를 위해 환자, 보호자, 일반인,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 양[8]의 연구에서 3.23점,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사무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김[9]의 연구에서 각각 3.49점, 3.23점, 3.10점, 3.13점, 3.46점, 방사선의 이미지(인식도)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신[10]의 연구에서 3.02점으로 보고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좋음을 의미하며, 간호·보건계열의 역사에 비해 짧은 17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응급구조사의 위상과 자질을 드높이는 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28개 문항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직업의식이 3.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전문성 3.46점, 업무 3.43점, 자질 3.40점, 태도 3.09점, 역할 2.74점 순으로 나타나 직업의식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역할 이미지가 가장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6]

의 연구에서 역할 이미지가 2.83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되는 면과 일치한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독자성 결여와 의사의 지시 아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응급구조사 이미지 28개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를 문항별로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경우는 “의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3.82±0.66)였으며 다음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3.63±0.69)순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낮게 나타난 문항은 “잘난 체하고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다.”(역문항, 2.05±0.79)였으며 다음으로 “기계적이고 타성적이다.”(역문항, 2.61±0.81)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윤[6], Kiger[11], 양[8], 김[9]의 연구와 문항별 순위가 일부 일치한다. 이는 의사와 상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기계적이고 타성적이다.”(역문항)가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에 대한 한계와 독자성 결여에서 오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진료보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인 업무 범위를 확대 및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다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시사하는 바이다. 윤[6]의 연구와 비교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항목에 관한 부분(역문항)은 평균점수가 이전에 비해 낮아져 응급구조사의 업무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이는 ‘항상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역문항, 3.38±0.95)’,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역문항, 3.43±0.90)’의 부분에 해당이 되며, 오히려 ‘타부서보다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역문항, 3.52±0.99)’가 점수가 높아진 점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고 환자의 질환을 알지 못하고 내원하는 응급실 특성상 감염에 취약해짐을 나타내므로 응급실의 감염관리와 응급구조사의 감염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성별($t=3.28, p=0.001$), 종교($F=2.93, p=0.024$), 결혼여부($F=4.95, p=0.009$), 면허종류($t=11.64, p=0.001$), 병원 경력($F=5.50, p=0.000$), 응급실 경력

($F=6.67, p=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가, 결혼 여부는 기타(이혼 등) 및 미혼이, 면허종류는 의사가, 병원 경력과 응급실 경력은 2년 미만이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8]의 연구에서 성별, 결혼상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12]의 연구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의사가 간호사보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호사보다 의사와 함께 협동하여 일을 하는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되며, 병원 경력과 응급실 경력이 낮은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경력이 적은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력이 높은 경력이 많은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 동료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관해야 하며, 전문직으로써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더욱 향상 될 것이다. 또한 협회 차원의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중매체 홍보와 모니터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전·충남 소재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122명을 연구대상으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이다.

대상자들의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28문항에 대해 3.27±0.34점으로 나타나 병원 내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정도는 중간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직업의식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역할 이미지가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의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가장 높았고 ‘잘난 체하고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다.’가 가

장 낮았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성별($t=3.28, p=0.001$), 종교($F=2.93, p=0.024$), 결혼여부($F=4.95, p=0.009$), 면허 종류($t=11.64, p=0.001$), 병원 경력($F=5.50, p=0.000$), 응급실 경력($F=6.67, p=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1]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연도별 응급구조사 배출현황”, 2011.

[2] 윤종근, 이영현, 정지연, “일 지역 병원내의 응급구조 업무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집, 제9권, 제2호, pp.21-28, 2005.

[3] P. Kotler and Clark,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 New Jersey, Practice-Hall Inc., 1987.

[4] H. Barich and P. Kotler, “A framework for marketing image management”, MIT Sloan Management Review, Vol.32(Winter), pp.94-144, 1991.

[5] 이선미, 박경숙,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앙간호논문집, 제3권, 제2호, 1999.

[6] 윤종근, 정영, 박미영,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업무인식 조사”,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제9권, 제2호, pp.41-57, 2004.

[7] 이인수, 오진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통권 제16호, 2008.

[8] 양일심,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간호행정학회, 제4권, 제2호, 1998.

[9] 김형자, 김현옥,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7권, 제1호, 2001.

[10] 신성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지각하는 방사선사 인식도”,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2011.

[11] A. M. Kiger, “Accord and Discord in Student’s image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제32권, 제7호, pp.209-317, 1993.

[12] 김신희, 김효숙, 정수정, 이상미, 박경숙, 용숙현, “일개 대학 병원의 간호이미지에 관한 간호사, 의사, 간호보조원, 일반직원, 및 환자의 견해분석”, 임상간호연구지, 제4권, 1999.

저 자 소 개

한 송 이(Song-Yi Han)

정희원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학사)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학석사)
- 2011년 9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응급구조학, 의료 시뮬레이션, OSCE

배 기 숙(Ki-Sook Bae)

정희원



- 200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학석사)
- 2011년 1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 박사과정

• 2011년 3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응급구조학, 의료 시뮬레이션, OSCE

김 진 옥(Jin-Uk Kim)

정희원



- 2010년 1월 ~ 2011년 9월 : 강원대학교 의전원 진료능력개발센터
- 2006년 2월 :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이학사)
- 2012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석사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응급구조학, 의료 시뮬레이션, OSCE